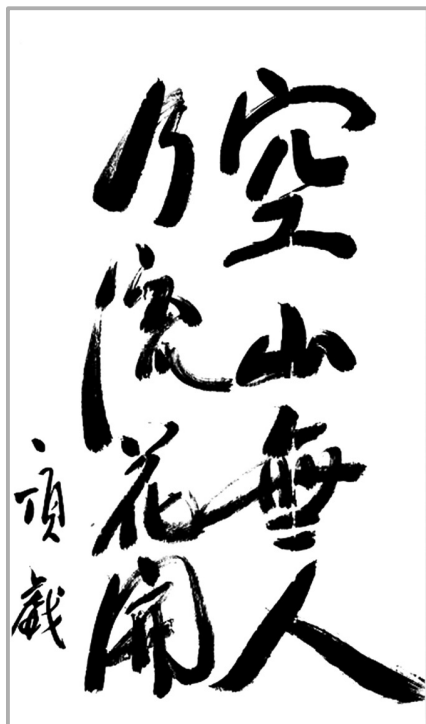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9



지역 순회법회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첫 번째 지역 순회법회”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맑고 향기롭게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첫 번째 지역 순회법회가 오는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법당에서 개최됩니다.

법회에 앞서 오후 4시에는 대전임원 및 회원들 간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지역모임 법석이 기획되고 개최될 것입니다. 지역 회원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덕현스님 대전지역 순회법회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 042)471-8214)
- ◆ 대전 임원 및 회원들 간의 만남
9월 17일(금) 오후 4시, 유성호텔 중식부 (☎ 042)820-0100)

표지사진 : 法頂스님 禪墨展 중에서

空山無人 水流花開 : 빈 산에 사람 그림자 없이 물 흐르고 꽃이 피더라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9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한바탕 크게 웃으라
이달의 법문 / 덕현	7	자문(自問)
생명칼럼 / 우희중	10	잃어버린 아상(我相)을 찾아서
산골만화 / 정태경	13	내가 커가는 만큼
채식으로 세상보기 / 이성학	14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생태 돋보기 / 최원형	16	볼 수 있는 것은 눈보다 마음
맑고의 나눔현장 / 임경숙	21	전화말뭇 봉사팀
봉사하는 사람들 / 효명화	25	지장회와 인연
수행하는 사람들 / 조홍근	27	내가 아닌 나를 찾아서
사진으로 보는 8월 숲기행	30	경북 영천 치산계곡 군위 한밤마을
기도하는 사람들 / 여일행	32	자비도량 참법 기도 후에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33	8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8	서울모임
	42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5	9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9월 1일 발행 / 봉권 18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한바탕 크게 웃으라

「텅 빈 충만」 중에서

法頂 (스님)

... (중략) ...

구름은 하늘에 떠 있고 물은 병 안에 들어 있다. 법(진리)은 마땅히 있을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데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진리가 있지 않다는 말이다. 종교가 혹은 신앙생활이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나 절에만 종교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나 절은 어떤 의미에서 틀에 박힌 혹은 꺼풀만 남은 종교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절은 진실한 수행보다는 상업주의에 거의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한 것도, 일상적인 무심한 마음(平常心)이 곧 도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달이 밝은 밤에 약산 스님은 산 위에 올라가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었다. 문득 구름이 열리면서 그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히 그 얼굴을 드러냈다.

이때 스님은 온 산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릴 만큼 크게 웃었다. 산 위에서 거닐다가 달을 보고 한바탕 크게 웃는 노스님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한 폭의 호쾌한 그림처럼 여겨진다. 중국의 현대화가 장대천(張大千)이 수묵발채(水墨潑彩)로 그린 <여산

도(慮山圖)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날 밤 약산의 한바탕 큰 웃음소리는 동쪽 90리 밖에 있는 예주에까지 울려 퍼졌다고 선종의 역사서인 <조당집(祖堂集)>에는 기록되어 있다. 예주 사람들은 모두 바로 자기네 이웃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것으로 알았었다. 한 집 두 집 알아본 끝에 약산에까지 이르렀는데, 스님들이 말하기를 ‘지난 밤에 노스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크게 웃으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고는 시를 지어 스님께 보내드렸다.


그윽한 거처에 소탈한 뜻 맞았는지
한해가 다하도록 맞고 보낼 일 없었네
때로는 곧바로 외로운 산정에 올라
달 아래 구름 헤치고 한바탕 크게
웃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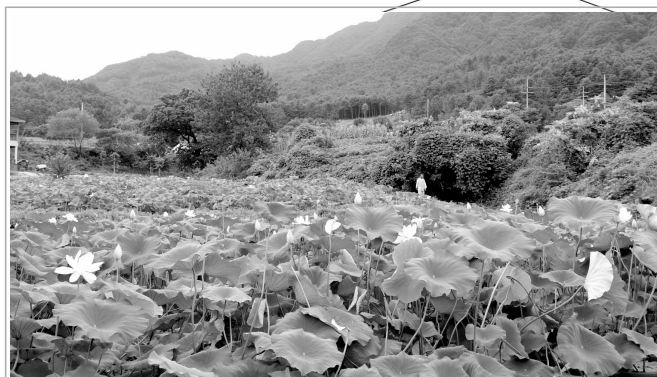
호쾌한 웃음소리를 들은 지

언제인가, 오늘날 우리 곁에는 그런 웃음소리가 귀하다. 살기에 쫓기고 지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시름에 겨울수록 사람은 웃을 줄을 알아야 한다. 웃어야 닫힌 마음이 열리고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린다. 겹겹으로 싸인 어둡고 답답한 벽들이 허물어진다.

땅을 울리고 하늘에 메아리치는 그런 호쾌하고 장대한 웃음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근심 걱정애 싸여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이웃들이여, 굳이 산 꼭대기가 아니라도 친구를 만나 한바탕 실컷 웃어보라. 혼자서 웃으면 실성했다고 할테니까 누구와 함께 실컷 웃어보라.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훨씬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까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스님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 : 연꽃길 / 정명스님 (연화세계)



자 문(自問)

德賢 (이사장)

그대 살아가는 목적이 오로지 그대 자신과 모든 생명을 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그 하나의 일을 위하여 먹고, 입고, 쓸 수 있는가? 가진 것 없이 맨발로 천하를 거닐 수 있는가? 한 발 한 발,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걷고, 한 숨 한 숨, 마지막 숨까지 그렇게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뿐, 지나온 외로움에 눈물짓거나 길의 쓰라림에 후회하지 않으며, 스쳐온 중생들의 추루함을 깨끗이 잊을 수 있는가?

걸음걸음이 꿈길임을 알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끝없는 길을 갈 수 있는가? 부러진 다리를 버드나무 껍질로 동여매고 다시 사나운 말을 잡아탈 수 있는가? 목숨 걸어야 할 때 목숨 걸고, 무릎 꿇을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을 만나 지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가? 처자의 목을 베고 적진으로 갈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다른 이들이 갈구하고 추앙하는 것들을 이미 지냈으며 어느 것 하나 붙들거나 소유하지 않고 나 무심히 그것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어 모두가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얽혀 지냈던 긴 기쁨에 닳을 내리기보다 벗어나는 흥가분함과 날아오르는 가벼움을 날개 삼을 수 있는가? 뿌리내리는 집요함 대신 꽃의 향기로 피어나 보다 우아한 바람에 춤출 수 있는가?

말없이 돕고 흔적 없이 떠날 수 있는가? 웅크리고 잠든 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대 자신의 일을



위하여 떠나기 전에, 힘든 일 마치고 지쳐 돌아올 이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가?

지금 피 흐르는 자신의 발에 난 상처는 그냥 딛고 가고, 고개 들어 다른 이의 오래 묵은 흉터에 입 맞출 수 있는가? 샘물처럼 편안히, 누가 오든 말든 마시든 말든, 맑고 찬 물을 끝없이 토할 수 있는가? 햇살처럼 오만하게, 구름이 끼든 말든, 지구가 구르든 말든, 누가 따뜻하건 말건 떠죽건 말건, 장렬

하게 내리꽃힐 수 있는가?

가장 높은 것을 지향하고 그 정점에 설 수 있는가?

그대 정녕 부처의 이름을 지우고 불법을 멸하게 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그대의 그 높은 가능성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가?

왜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가?

정녕 그대에게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가?

그대 이미 진실되고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 길 떠났다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두리번두리번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
 주춤거리지 않으리.

우리의 근본 되는 스승은 무상사
 無上師이며 정등각자正等覺者. 그보
 다 더 높은 곳 없는 그 곳, 그러나
 수많은 과거의 부처가 이미 이르
 렀고, 미래의 그 누구라도 다시 이를
 수 있는 그 정상에 이르신 분.

그대 왜 그 봉우리를 향해 묵묵
 히 오르지 않는가? 한번 이르면
 영원히 퇴전치 않는 불멸의 평안,
 이르고 보면 본래 떠나온 고향이
 었던 기쁨의 경계 없는 땅을 두고
 그대 왜 칸첸중가* 따위를 문제 삼
 는가?

그대 이미 진실되고 정확하게 그

곳을 향해 길 떠났다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두리번두리번 앞서간 사
 람의 발자국을 찾아 주춤거리지 않
 으리. 丈夫自由衝天志 不向如來行處
 行(장부자유충천지 불향여래행처행),
 장부라면 저마다 하늘을 찌르는
 기상 있으니, 부처님 가는 길이라
 해도 따라 가지 않는다.

땀 흘려도 덥다 덥다 하지 말라.
 그리 오래지 않아, 서릿발 달빛 아
 래 코끝 스치는 국화향이 그대의
 오래 묵은 눈물샘을 바늘처럼 뚫
 으리라.

가라,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 🌸

※ 칸첸중가 Kanchenjunga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한 세계 제3봉, 높이 8,586m. 최근 산악인 오은선씨
 가 이 산의 등정여부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편집자 주



잃어버린 아상(我相)을 찾아서

우 희 종

법명 여산,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송광사 현전스님의 유발상좌로 '무'자 화두로 간화선 수행을 했다. 정부의 쇄고기수입정책을 비판하며 「생명과학과 선」 등의 저서가 있다. - 편집자 주

불가에서는 금강경에서도 강조되듯이 아상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해지고, 우리도 종종 '아상이 높아서~' 등의 표현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상을 없애야 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말은 아닌 듯싶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면역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아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모순으로 들린다.

모든 생명체는 나라고 하는 개체고유성(individuality, 개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개체고유성을 지닌 못생명이 모여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한 집

단이나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유성이 보장되고 그러한 고유성에 의해 나타나는 서로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생태계나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면역학에서는 나를 병원균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라는 개체고유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를 연구한다. 그 만큼 나라고 하는 개체성은 곧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생명현상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중요한 개체고유성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개체성은 생명체

금강경의 공(空)은 생(生)을 위해 있다.

단지 아상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것을 경계할 뿐이지
떠도 떠도 마르지 않는 본래 마음을 내는
진정한 아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겪는 주위와의 반응, 기억, 망각 등의 총체적 누적 결과로 형성되며, 이는 생명체가 지닌 욕망 발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을 개방성(openness)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과의 상호관계성이자 상호의존성이자, 일반적으로 생명력이라고 부르는 욕망의 힘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개체고유성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상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아상이고 이러한 아상이 존중되고 보장될 때 사회와 세상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설했다는 금강경에 있듯이 탐진치와 아상을 버리라는 말은 어


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생명체에서 아상이라는 욕망에 근거한 개체고유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강경을 잘 들여다보면 금강경의 주제는 공(空)을 말씀하고자 설해진 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이치를 가르쳐주시는 경임을 알 수 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낸 이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며 체화할 것인가’가 주제이고 이에 대하여 ‘뭇중생을 제도하되 제도된 이가 하나도 없다’는 부처님의 답이 금강경의 요지이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일 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 이치는 제도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호념하고 부촉하는 자들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말에서 ‘이생기심’처럼 그 마음을 내는 자이어야 하며, 종종 착각하듯이 이멸기심하여 마음을 멸(滅)하여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의 공(空)은 생(生)을 위해 있다. 단지 아상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것을 경계할 뿐이지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본래 마음을 내는 진정한 아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은 주위와의 끊임없는 관계성을 통찰하여 너와 내가 상호의존되어 있음을 알고, 상생(相生)을 위해 열린 욕망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결국 열린 아상을 통해 적극적 참여의 삶이 소중하다는 말씀이니 이것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자 금강경 가르침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것은 자연스레 자타불이이자 동체대비로 이어질 수밖에

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불가의 가르침을 굳이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욕심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자존심(自尊心)은 버리되, 생명력에 가득 찬 진정한 자긍심(自矜心)을 지님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잃어버렸던 진정한 아상을 찾으라는 것이기에 금강경이야말로 생명현상의 근본인 개체고유성의 이치를 가장 명확히 알려준 경이기도 하다. 이제 잃어버린 아상을 찾아서, 잃어버린 생명의 힘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할 때인 듯하다. 





내가 커가는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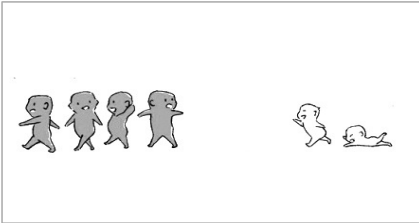
정 태 경



비료를 안 해서인가?
이웃 밭과 차이가 난다.



같은 모종을 얻어
심었는데...
초보농사 티가 나는군.



늦어도 좋고
작아도 좋다!



내가 커가는 만큼
너희들도 커가겠지.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 성 학 (기획실장)

“채식을 하자.”

“육식을 안 하거나 줄여보자.”

이런 말을 사막의 유목민족이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할 수 없다. 풍토적으로 채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먹을거리는 풍토적 소산이다. 사람은 주변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오랜 세월 적응해가는 동안 체질과 기질도 그 곳 풍토에 맞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농사에 적합한 곳이다. 오곡이 풍부하고 각 지역마다 약초 등 특산품도 많은 땅이다. 이런 농경민족에게 우유라든지 지나친 육식은 체질과 기질적으로도 맞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하여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락타아제(lactase)가 없거나 그

수가 부족하여 생긴 현상이다.

최근의 급속한 육식 증가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시장개방에 따른 무차별적인 공급도 한 몫을 하였다. 보편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국내생산과 수입비율을 조사해보았더니 특히 쇠고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2008년도 쇠고기의 국내생산과 수입은 17만 4천톤과 22만 4천톤으로 그 비율은 44:56이었고, 수입국별 통계는 호주산 58%, 미국산 24%, 뉴질랜드산 17%, 기타 1%였다. 쇠고기 수입은 이전까지는 쿼터제로 국내수입이 제한되다가 2001년부터 완전 자유화되었는데 2003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이 가장 컸다.(60~70%대) 그러다가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그 자리를 호주산이 차지하여 현재는 호주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자체적인 국내 육류생산 증가와 비율도 만만치 않았다. 돼지고기는 국내생산과 수입이 82만 6천톤과 35만 6천톤으로 그 비율은 70:30, 닭고기는 54만 3천톤과 6만 톤으로 그 비율은 90:10이었으며, 돼지고기는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닭고기는 미국 중국 브라질에서 수입되었다. 수입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돼지고기는 1만톤 정도를 주로 러시아로, 닭고기도 6천톤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주요통계 참조함)


2008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5.5kg으로 돼지고기 19kg, 닭고기 9kg, 쇠고기 7.5kg 순으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있었다.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을 200g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100인분 가까운 양을, 한 달에 8인분 정도를 먹는다. 이 통계는 어린이, 노인 등까지

포함하므로 보통 성인들이 먹는 육류 소비량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육식의 급속한 증가를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고기라는 맛을 얻는 대가로 발생하는 폐해는 자원낭비 환경파괴, 식량부족 등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고기를 단순한 음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기를 음식 이전에 생명으로 볼 수는 없을까.

지구온난화는 숲이 사라지고 대기권에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생긴 것이지만, 혹 매일 매일 도축되는 수많은 동물들의 두려움과 원망이 내 뿜는 열 때문은 아닐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인데,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차라리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불교식으로 보면 지나친 것에 대한 과보는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어있다.

한국이 육식국가가 되어 가는 것이 못내 슬프기만 하다. 



볼 수 있는 것은 눈보다 마음

최 원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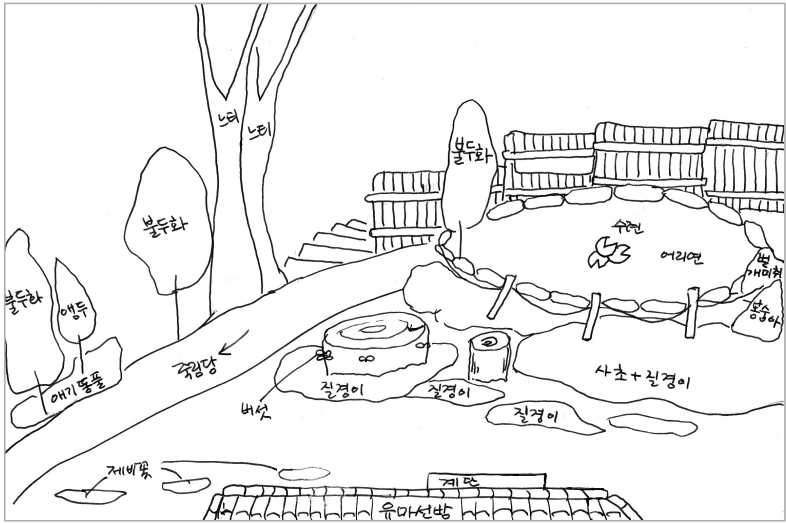
법명 심지명, 길상사 도서관 봉사팀장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편집자 주

유마 선방 앞마당에 나가 앉아 봅니다. 텅 빈 마당가, 고즈넉한 시간을 홀로 즐기며, 마당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말없는 말을 걸어봅니다.

선방 댕돌 아래쪽에 살고 있는 제비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꽃이 진 자리에 맺힌 씨방이 툭 터져 그 속에 알갱이들이 오종종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잘 여물어 이제 곧 어디론가 튀어나갈 태세군요. 그리고 보니 유마선방 트락 이곳저곳에서 제비꽃무리들이 제법 보입니다. 어떤 것은 씨방 속에 씨앗들을 콕콕 채우고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씨앗은 온데간데없이 잎들만이 하늘을 향해 팔 벌리고 앉아있

습니다. 이미 씨앗을 어디로든 실어 보낸 제비꽃들은 한 해 목표를 이룬 여유로움을 선방 트락에서 만끽하고 있는 듯도 보입니다.

산길을 오르다보면 양지바른 곳에서 제비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제비꽃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의 틈바구니에 흙이 있는 곳이나 갈라진 돌담 사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제비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비꽃의 씨앗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엘라이오솜이라는 물질이 제비꽃 씨앗에 붙어 있는데 이 젤리상태의 지방덩어리들을 개미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개미들은 제비꽃 씨앗을 옮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엘라이오솜만 먹고 씨앗은 필요 없으니 밖으로 버립니다. 그 버린 곳이 콘크리트의 갈라진 틈바구니일 수도, 돌담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비꽃 처지에서 보면 개미는 운반자인 셈인 거죠. 서로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선방으로 드나드는 길가를 살짝 비껴난 오른쪽에 나무둥치 두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큰 것

하나, 좀 작은 것 하나. 큰 둥치에서 버섯 무리들을 여럿 찾았습니다. 올 여름엔 비가 오락가락하는 때가 많아서인지 버섯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버섯이 자란다는 것은 분해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겠죠. 분해는 곧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작업을 의미할 테고요. 역시 나무둥치 아랫부분이 썩고 있군요. 누구나 생의 한 사이클을 돌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듯, 이 나무 둥치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단할 것 같은 나무줄기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그런 과정을 나무 아래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유한함을 느끼는 찰나입니다.

눈을 땅으로 옮겨봅니다. 땅에도 이름 모를 버섯들이 무리지어 둥글게 자라고 있는데요. 버섯들은 보통 땅 속에서 뿌리역할을 하는 균사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버섯이 있는 곳을 보면 홀로 있기보단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렁이 분변토도 보입니다. 지렁이가 흙을 먹고 배설한 것을 분변토라 합니다. 편히 말하자면 지렁이 똥인 거죠. 일반 흙과 달리 분변토는 무기질 함량이 높고 미생물의 밀도도 높아 천연비료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변토의 모습은 마치 흙으로 자디잔 구슬을 빚어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 같은 형상입니다. 지렁이가 보이지 않아도 분변토를 만나게 되면 어느새 미소 짓게 됩니다. ‘숨어있어도 다 알 수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 밑 어딘가에 있을 지렁이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이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제비꽃 씨방〉



〈나무동치〉

인들이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흙을 기름지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렁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분변토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렁이는 끊임없이 흙을 갈아엎는 살아있는 쟁기며 가장 부지런한 농부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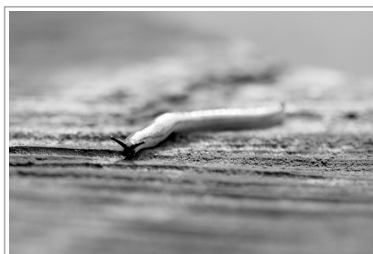
도 합니다.

그 돌레로 바위취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취는 5, 6월쯤 하얀 꽃이 피는데 꽃 잎 다섯 장 중 밑에 있는 꽃잎 두 장이 유난히 커서 눈에 띄는 야생화랍니다. 내년 봄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등치 뒤쪽으로는 수련과 어리연이 사는 작은 못도 있네요. 수련의 ‘수’자는 ‘물 수’가 아니라 ‘잠잘 수’랍니다. 꽃이 낮에만 피고 밤에는 오므리기 때문에 잠자는 연꽃이라는 뜻에서 수련이라 한답니다.

못에서 왼쪽 죽림당 오르는 길실에 불두화가 두 그루, 그 불두화들 사이에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불두화 잎은 끝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잎자루는 길고 붉은 빛이 돕니다. 불두화의 꽃은 보통 초파일 무렵쯤 해서 가지 끝에 하얀 꽃송이가 공처럼 탐스럽게 핍니다. 꽃 생김새가 부처님 머리모양처럼 생겨 불두화라 부른대지요. 지금은 꽃자루들만 남아 지난 봄, 꽃의 화려했을 흔적을 말해 줍니다. 이곳을 지나는 누구든 앵두나



〈질경이〉



〈민달팽이〉


무 잎사귀를 한 번 만져보시길 권합니다. 잎의 앞, 뒷면에 부드러운 털이 많아 참 포근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잎사귀지만 한번쯤은 뺨을 대보고 싶은 맘이 들만큼 정겹습니다.

어, 마당 여기저기에 질경이 무리가 눈에 띄네요. 질경이는 질겨서 질경이라지요. 길을 따라 자란다

고 차전초라고도 불리고 독일에서는 ‘길의 파수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질경이가 밟히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잎이 부드러워 밟히면 찢어지기 쉽지만, 잎 속에 다섯 개의 질긴 실줄기가 있어 밟혀도 심하게 찢어지거나 꺾이지 않는답니다. 잎을 양쪽에서 잡아당겨보면 실줄기가 뽑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꽃줄기는 잎과 달리 바깥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구조여서 단단한 구조로 꺾일까 염려스러워도 안에서 완충역할을 해주니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자주 밟히는 곳에 사는 질경이의 꽃줄기는 비스듬히 뻗어서 밟혀도 쉽게 몽그러지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 그런가요, 무척 치밀하죠?

어느 날엔가는 이곳 유마 선방 마당에서 민달팽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비 온 뒤 날이 갠 오후, 큰 나무 등치위로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던 민달팽이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오락가락하

지 않고, 타인의 속도와 자신을 견주지도 않는 그 의연함이 무척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마선방 마당을 바깥에서 언뜻 둘러보면 볼 게 없습니다. 화려한 꽃도 없고 잘 가꾸어진 나무랄까..., 뭐 특별히 눈에 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담아 들여다보면 그곳에도 많은 생명들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오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눈보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얼마만큼 열고 보는가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르릉~~

마음 한 구석에 늘 그늘을 가지고 있을
주변의 결식이웃들을 위하여

- 전화말벗 봉사팀

엄 경 숙 (전화말벗 모듬장)



2007년 10월, 그동안의 결식이웃 지원사업이 물질적 지원에 치중했다고 판단해, 대상자 개개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정서적 지원을 하고자 전화말벗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식이웃 후원 대상자의 상당 부

분이 독거노인이기에 전화말벗 봉사는 1주일에 한번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지요, 더불어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고, 말벗을 통해

전화말뭇 봉사팀

전화말뭇 봉사는 반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결식 이웃들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전화로 건강, 안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대상자는 100여 분이며, 10여 명의 회원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서울모임으로 연락주시면 간단한 교육과 함께 바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 전화 : (02)741-4696~7

지속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 문제를 요청하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10명의 봉사자로 시작하여 지금은 8명, 참 지난달에 한 분이 참여하셔서 식구가 한 분 늘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셨지요?”

“응, 바쁘는데 또 전화 주었네.”

“일주일 동안 별 일 없으셨지요?”

“별 일은 뭐, 맛난 반찬 그거 삼계탕 잘 먹었다우. 하하하”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늘 이렇게 맛난 반찬 줘 맛나게 먹고 있다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초기에는 서로가 어떻게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3년이라는 문턱에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의 따르릉을 소개하게 되는군요.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어르신들께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 우리 부모님께도 1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게 되어 효자가 된 기분이랍니다.

작년엔 어르신들께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라고 예쁜 이불을 선물하였습니다. 각자 전화로만 통화하다보니 서로 만나고 싶어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다 보니 게으름 피우고, 귀찮아하기도 한 순간들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고쟁이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칩발라가면서 1만원 2만원씩 용돈을 주시는 분, 봉투에 2만원을 넣어서

제 책 갈피에 넣어놓으신 분, 예쁜 지갑을 선물로 주시는 분,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 40만 원 정도의 생활비에서 관절염 약값이 많이 나가기에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자식이 이혼해 아이들만 남겨두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부부가 아프셔서 겨우 움직이시는 분도 계셨고요. 우리 전화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준비한 이불을 만지시면서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많은 보람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쁜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희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리면 어르신들이 먼저 전화를 주시기도 한다는군요. 바쁘니까 어르신이 전화하신다고 할 때는 눈앞이 흐릿해지기도 했지요.

한 어르신은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제 전화를 받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 매일 저한테 좋은 글을 문자로 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언니 애인 오셨어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길상사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주 오셨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팀에서 복날에 특식으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탕수육을 맛있게 튀기고 소스는 따로 만들어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는 소스가 무엇인지 몰라서 못 드시고 고기만 드셨다는군요. 그래서 “어르신 그 소스는 고기 위에 부어 드시면 더 맛이 있어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께서 좋아 하시는 반찬은 고기반찬이구요, 조금은 부드러운 것이고요, 짠 것보단 싱거운 것이랍니다. 싱거우면 어르신들께서 다시 조리하여 드시더라고요.


가끔 혼자서 쓸쓸히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신데, 몇 년을 통화하신 분기에 이럴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전화로 통화하지만 늘 그 분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늘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께 행복을 배우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께 전화 드리고 있는 우리 따르릉 전화 말벗 9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번 병원에 입원하신 이정은 봉사 회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지장회와 인연

효명화

요즘은 여름 무더위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길상사에서 기도도 하고 지장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이고 더위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지장회 도반들과 즐겁게 참으로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장회와의 인연은 작년에 입시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길상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기도한 자리만큼은 청소를 하고 가자는 것이 인연이 된 것입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재를 모시면서 영정 사진 속에서 부모님을, 남편을,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떠올리며 우리도 이렇게 가겠구나 싶어 삶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또한 지장회 도반들과 봉사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장회는 새로 생긴 신행단체라 회원이 적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법정스님 49재를 모시면서, 마음을 낸 보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자리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장회에 마음을 낸 보살들의 인연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면서도 기꺼이 함께 동참해주신 보살님.

학교자모로 알게 되어 함께 마음을 내준 보살님.

다른 신행단체에서 봉사하셨던 분인데 잠시 쉬고 있다 초보 지장회를 도우러 오신 보살님.

길상사를 다니는 이웃의 권유로 들어와 불교를 만난 보살님.

수능기도를 드리며 재 드리는 지장회 모습이 눈에 들어온 보살님.

친구 따라 와 길상사보다 지장회를 먼저 알게 된 보살님.




길상사에서 어머니 49재를 모시고
어머니가 그리워 들어오신 보살님,
직장에 다녀 주말에만 기도를 오
시면서 힘을 보태주시는 보살님,

예전에 범당청소봉사를 하시다 다
시 함께 하신 보살님,

90일 다라니기도를 드리다 “성
불하세요”하는 미소에 들어오신 보
살님,

청소하는 지장회를 도우려고 들
어오신 지장전에서 기도드리는 보
살님, 또한 지장회와 잠시 인연을
맺다 나가신 보살님들까지...

앞으로도 계속 보살님들의 지장회
인연이야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1. 도서관 : 도서관을 가꾸고, 이용자들이 책을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실한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2. 신행단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현회 - 후원(선열당) 봉사
 - 합창단 - 찾침 봉사·음성 공양
 - 문수회 - 도량 안내·안내실 봉사
 - 지장회 - 범당청소·재 관련 봉사
 - 관음회 - 수련회 봉사
 - 보리회 - 도서관 봉사



내가 아닌 나를 찾아서

조 흥 근

한 번도 안정되고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근대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겐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이요, 날카로운 작두날 위의 칼춤이었다. 일상의 자잘한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인정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도 영원한 기쁨은커녕 찰나지간에 명멸하는 반딧불보다 못하다는 것을 나의 직업과 경험을 통해 익히 보아왔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으라”라는 비발디의 곡명대로 사람들은 불만족에 시달리고 세상은 늘 불안하고 평화롭지 않았다.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간 순간 허물어졌다 생성되며, 너나 나나 하는 딱딱하게 구별되는 것은 사실 우리 뇌의 착각이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큰 흐름의 일부다. 현대과학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 우주는 시작도 끝

도 없으며(빅뱅은 다른 우주의 충돌로 생겼다) 따라서 표면적인 개체의 죽음은 있을지언정 사실은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 것들로부터 고립된 내가 실재한다는 잘못된 관념만 버린다면 나는 그야말로 자잘한 불안은 물론 생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진리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수영하는 법을 아무리 공부해 보아야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듯이 진리를 이성과 논리로 알아봐야 현실에서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물에 직접 들어가야 수영이 되듯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선 수행이 필요했다.

석가탄신일에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길상사에 찾아와 역시 무엇인가에 이끌려 ‘주말선수련회’에 두 번 참

석했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쩌다 한 번 하는 선수련회나 주 단위로 하는 예블로는 함량미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궁하면 통한다고, 주지스님께서 지나가는 듯 말씀하셔서 아침 참선수행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엄두를 못 냈다. 직장이 있는데다 집도 멀고 직장도 멀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다. 깨달음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다른 장애물은 부수적이었다. 무작정 참석했다. 신기하게도 시간문제, 교통문제 등 다른 장애가 점점 사라져갔다. 고맙고 놀라게도 여러 사람과 상황이 수행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전 아침수행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간다.

처음엔 참 힘들었다.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데 반가부좌나 가부좌를 틀어야 하니 고문이 따로 없었다. 특히 나처럼 체중이 좀 나가는 중년남자에겐 30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깨달음이고 뭐고 간에 아픈데 집중하느라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맘 편하게 생각했다. 일단 ‘몸부터 움직이지 않겠다, 무작정 숨만 쉬겠다, 몸이 이

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하고 오기를 부렸다.

수행도 구력이다.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덜 오고 마침내 자세는 큰 고통이 아니게 되었다. 아교처럼 괴롭히던 잠과 번잡한 생각 역시 사라지진 않았지만 훨씬 가닥이 잡혀 단순하게 다가오고 있다.

수행의 힘은 상상외로 크다. 직장을 다녀 한 시간 밖에 못하지만 그 시간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약효는 얼마 가지 않지만 수행을 하고 나면 성정이 부드러워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잠시 사라져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관대하고 친절해지고 조금함이 감소한다.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남들의 말에 의하면 피부가 더 맑아졌다고 한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몸이 예민해져 술을 마시면 힘들어져서 마시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행을 신 날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뭔가 불편하고 거북하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매일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 깨달음은 구한다고 올 것이 아니지만 이젠 수행 그 자체가 큰 기쁨이다. 수행은 폭풍우 같은 세상에 닦을 내릴 수 있는 안전한 항구이다.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다. 🌸

<아침·저녁 좌선수행>

길상사에서는 하안거 동안에 매일 아침 좌선을 하는 '아침 좌선수행'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저녁 시간에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선 시간은 수행 경험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입실하시면 됩니다. 좌선 후에는 스님께 여쭙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 아침 좌선: 오전 7시~9시 / 주지스님
- 저녁 좌선: 저녁 7시 반~8시 반 / 선원장스님

* 좌선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주말 선수련회를 먼저 참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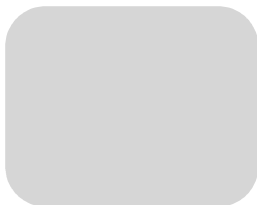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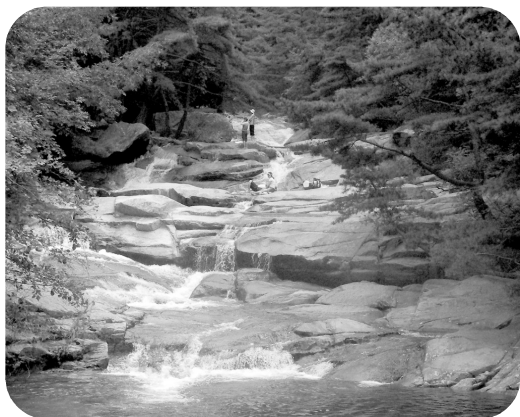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8월 솔기회 ~~~~~

경북 영천 치산계곡 군위 한·밤·마·울







자비도량 참법 기도 후에

여 일 행

미륵부처님의 현몽에 의하여 <자비도량참법> 혹은 양나라의 양무제가 죽은 왕후 치씨를 위하여 고승들에게 편집한 <양황보참>이라도 한다.

기도의 기초이자 생명수와 같은 법문기도라 하여, 인연이 있는 이들과 함께 각자의 간절한 원을 세워 설법전과 지장전을 오가며 땀이 비가 오듯 하고, 숨이 차올랐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절을 했다.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태산같이 지은 죄를 소멸하여 달라고 빌면서도 어느 새 한순간 또 다른 잡념에 싸여 허우적거리다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몇 번 하다 보니 그 두껍던 책도 내 마음처럼 가벼워졌다.

욕심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번뇌를 없애고 참회하며 회향하여 나 자신이 밝아지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밝아진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해마다 하는 기도건만 기도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보살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참된 삶이 되기를,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는 자식이 되기를,

어질고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열흘 동안 무더운 날씨에 보살님들을 이끌어주신 일곱 분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모희원(1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김광수 모듬장)

빨갛고 잘 익은 고추를 따기 위해서는 선별하기 좋게 쪼그려 앉아서 따야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회원들은 익히 알고 있다는 듯 그새 각자 간이 의자와 고추담을 용기를 들고 고추밭으로 신속하게 달려 들어갔다. 탐스럽게 달려있는 고추를 따는 만족감으로 더위를 잊으면서 오전 작업을 마무리 했다.

오후 작업은 자재창고 앞마당이 이번 장마로 유실되어 패인 곳을 메우는 작업이었다. 남자회원들은 경운기로 흙을 날라 마당에 부리고, 여자회원들은 그 흙으로 땅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전 회원들이 묵묵히 작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행처 사께서 작업을 중단시켰다. 작업 중단 이유를 물어보니 이 땡벌 더위에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무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동안 회원들의 근거지가 서울 근교에 두고 있는 관제로 전 회원들이 별도로 모이기가 어려웠던 참에 본부에서 지원해준 위로금으로 즉석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지하수로 머리감고, 세면하고, 바람부는 나무그늘 아래서 재활용품 문짝을 테이블로 만들면서 통닭과 시원한 생맥주를 시켰다. 간이 의자를 서로 맞대고 앉아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음으로 하루 작업을 끝냈다.

진인선원(8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류충열님께서 활동은 못하지만 열굴이라도 보겠다고 건춘문으로 오셨다. 밤을 세운 피곤한 몸으로 말이다.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담고 진인선원으로 향했다. 자유로 월드컵 경기장 인근을 지날 때 이성학 실장님의 전화가 왔다. 김경옥 회원님께서 길을 잘못 들어 해매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잠깐의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다시 차를 돌려 정부청사로 향했다. 정문 앞에 계시는 김경옥님을 모시고 다시 길을 달렸다. 평상시 보다 늦은 도착으로 먼저 도착한 승재님은 홀로 당근을 다듬고 있었다. 급하게 업무 분담하고 오전 일을 마쳤다. 오후는 전과 다름없이 땀으로 목욕하면서 어른신께 노래봉사를 하였다. 목이 약간 불편하신 김경옥님의 열

창과 송필에 님의 정성으로, 그리고 우리 예쁘고 씩씩한 보현 군의 참석으로 오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오전 일이 적다는 어떤 분의 푸념에 진인선원 선생님께 일을 좀 더 달라는 편지를 쓰고 나서 우리는 서울로 되돌아왔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우

(담당: 엄경숙 모듬장)

■ **이현주** - 장위동에 거주하는 박OO 할아버지는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고 한다.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되는데, 집주인은 토지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한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고 없어 적적하다고 한다.

■ **이순덕** - 석관동에 거주하는 김OO 어르신은 지난번 반찬으로 나갔던 탕수육을 어떻게 해먹는지 몰라 소스는 버리고, 고기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기만 했다고 한다. 안 먹어본 음식이라 탈이 날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한다.

김OO(장애, 독거) 어르신은 지체장애

3급인데, 골수염이 심하다고 한다. 장애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몇 차례 받았는데, 병명 진단이 안 돼 중복장애등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 외로워서인지 매번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있다.

■ **안정희** - 장OO 할머니는 친언니가 사망한 후 충격으로 치매가 더욱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 치매로 정신이 없을 때도 내 목소리는 알아보고 반가워 하셨는데 무척 아쉽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

(소감: 권미자 모듬장)

■ **9일 권미자** - 오늘 급식시간에는 한 어르신께서 식사 도중에 쓰러지는 불상사가 있었다. 몇 년간 봉사를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고 급식 봉사자들도 이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센터 직원분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단 식당바다에 눕히고 119구급대를 불렀는데 어르신께서 정신을 잃은 상태라 모두들 어쩔 줄 모르고 걱정만 하고 서 있었다. 119구급대가 와 수액을 주사하고 안정을 시킨 뒤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하

시던 다른 어르신들 중 어떤 분들은 식사를 다 못하고 남기시며 마음 편치 않아 하셨다. 오늘 쓰러진 어르신은 식사 도중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 정신을 잃으셨다고 한다. 더운 날씨에 놀라는 일까지 생겨 오늘은 센터 직원이나 봉사자들 모두 정신없이 급식시간을 보냈다.

■ **16일 권미자** - 오늘은 노인복지센터봉사팀에서 올해 나눔 활동으로 호박고지와 콩을 넣은 맛있는 백설기 떡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다. 지난 증복과 말복에는 식사 후에 시원한 수박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길상사에서 공양미를 후원해주어서 호박과 콩을 듬뿍 넣은 맛있는 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

마침 맑고 향기롭게에서 봉사하는 학생 한 명과 노인센터봉사자 분의 아들 두 명이 봉사에 함께 참여해서 학생과 봉사자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어르신들께 떡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다. 떡을 하나 받으시고도 더 달라고 떼(?)를 쓰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조금은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점심도 주고 맛있는 떡도 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 말씀에 신이 나서 더운 지도, 시간 가는 지도 몰랐다. 식사 시간이 끝날 때 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떡 박스도 거의 없어지고 몇 개 남은 떡 박스는 오후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제공하시라고 노인센터 관계자에게 드렸다. 더운 날씨에 못 나오신 봉사자 분들이 많아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어르신들이 호박고지와 콩을 넣은 떡을 받으시며 좋아라 하시는데 모습에 맑고 봉사자들 모두 기쁜 마음이었다.(오늘 함께한 학생들 모두 무거운 떡 박스도 번쩍번쩍 들어 옮겨주며 너무 열심히 잘해주었습니다.)

■ **23일 김숙희** - 항상 어르신들께서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비가 와서인지 오늘은 몇 분 보이지 않는다. 식사하시러 나오는 것도 힘드신데 비가 계속 오려나. 비가 그만 왔으면 좋으려만, 버스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집에서 조금 늦게 나와 오늘은 지각을 했다. 봉사자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척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인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적어 보인다. 모두들 각자 주어진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걱정이 조금 되는지 긴

장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모두들 환한 얼굴로 맞이한다.

8번 마지막 배식까지 모두 끝나갈 무렵 봉사자들을 보니 모두 지쳤을 텐데 웃고 있었다. 힘드셨을 텐데... 식사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순가락 정리하면서도 행복해 보인다. 맑고팀 봉사자들에게 행복한 향기가 느껴진다.

봉사를 처음하면서 저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매주 맑고팀과 함께 하면서 걱정도 없어지고요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보살님들께 감사합니다. 보살님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배요.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홍정근 봉사팀장)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아침!

9명의 청소년과 9명의 승가원 아동들이 짝꿍을 맺어, 요가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경직되었던 몸을 요가로 풀어보았다. 아동들을 집합시키고, 매트 깔고, 위치 정돈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 타이르고 야단치면서 혼도 냈지만, 순수한 아동들의 멋모르

는 모습에 깔깔 웃어가며, 장난도 쳐가면서 잘 마무리하였다.

셋째 주 요가 지도하는 김영신님은 요가와 울동과 놀이를 골고루 섞어서 잘 지도하고 있다. 현재 요가지도 봉사하는 분은 2명인데(첫째, 셋째 주), 사정상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 요가지도 봉사자가 더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셋째 주 청소년봉사자들은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칭찬하고 싶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소감: 최두리 모듬장)

■ 5, 6일 - 삼복더위, 초복·중복·말복으로 1년 중 가장 더울 때를 가리키죠, 지치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다들 기력회복을 위해 음식으로 보충을 하곤 하죠. 초복 쫄 요리장에서도 어르신들 영양보충을 위해 삼계탕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말복이라 또 다시 특식으로 탕수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삼복더위 중에 튀김을 하니 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이 팍팍에 흥당무가 되셨

습니다. 많이 지쳤다고들 하셨습니다.
 ■ **12일** -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 철도청 나눔이회 회원, 김치 할 때만 오시는 분, 오늘도 비는 오락가락, 이런 날씨가 더 후덥지근하죠. 이럴 때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전에도 한번 들리셨는데 적당한 시간에 한 아름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금산스님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스님이 격려차 들려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끼는데 아이스크림까지, 그것도 비싼 콘으로... 금산스님 다음엔 빈손으로도 환영합니다. 다른 스님들도 환영합니다. 가끔 조리장에 들려 봉사자들과 눈인사도 좀 하시고 가세요.

■ **26, 27일** -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 봉사자님들은 열심히 나오셔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목, 금 메뉴가 달랐습니다. 고구마순볶음의 메뉴, 고구마줄기 껍질을 벗기지 않기로 했지만 질겨서 다시 물에 데쳐 하나씩 벗겨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 제 시간에 완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금요일은

다시 시장에 나가 적당한 메뉴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반찬이 취나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목요팀은 소쿠리를 몽땅 솔로 닦았으며 금요팀은 가스레인지며 바닥을 솔로 뽀뽀 문질렀습니다. 광채가 난 만큼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총 353가구, 단체 1곳)

- 1째주 - 탕수육, 돌자반무침
- 2째주 - 김치
- 3째주 - 콩자반, 오이무침, 던킨도너츠, 농협상품권
- 4째주 - 돼지불고기, (목)고구마순볶음, (금)취나물, 바나나

- 결식이웃후원금 7월 1일 ~ 31일 14,612,000원
- 결식이웃 후원품
이운용 님 도넛 359박스,
배외선 님 바나나
- 9월부터는 강서구 가양2동으로 21가구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결식이웃후원 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첫 번째 지역 순회법회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맑고향기롭게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첫 번째 지역 순회법회가 오는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법회는 이평래 대전모임 본부장(전 충남대 교수)의 제의와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스님의 승낙으로 현재 백제불교회관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백고좌법회’의 한 법석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대전모임은 이평래 본부장을 중심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 속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회에 앞서 오후 4시에는 대전임원 및 회원들 간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지역모임 법석이

기회되고 개최될 것입니다. 지역 회원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덕현스님 대전지역 순회법회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 042)471-8214)

■ 대전 임원 및 회원들 간의 만남

9월 17일(금) 오후 4시, 유성호텔 중식부 (☎ 042)820-0100)

9월 주말 선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가 함께 열어나가는 뜻 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9월 18~19일)

■ 구참반: 9월 구참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열리지 않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9월 17일(금) 오후 2시, 설법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현스님의 법문과 2부 행사로 진행됩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9월 11일, 죽령옛길

- 42명 모집(입금순) / 맑고 향기롭게 회원·길상사 신도 2만원(직계가족 동일) 비회원 2만 5천원 /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결식후원 처리됨
 - 집결지 및 출발 시간 - 길상사 일주문 앞: 오전 6시 10분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오전 6시 20분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출발 시간 엄수)
 - 준비물: 도시락, 간식거리, 식수, 우산, 모자, 장갑, 등산화 착용 필수
 - 담당: 02)741-4696, 7(홍정근 팀장)
 - 남은일정: 10월 16일,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
- ※ 9월 숲기행은 추석 연휴가 18일부터 시작된 관계로 애초 공지한 18일에서

1주일 앞당긴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프로그램 변경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선택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9월부터 좀 더 기능면에서 보강된 프로그램으로 변경됩니다.

프로그램		재료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한방헤나 샴푸	한방헤나 샴푸	8,000	9,000
좀더 순해지고 부드러운 강화 / 250ml			
콜라겐 로션	세라마이드 로션	8,000	8,000
노화방지 / 100ml			
알부틴 세럼	상백피미백 에센스	10,000	7,000
미백/100ml			
한방비누	한방비누	11,000	11,000

* 회원 수강료 무료

알뜰나눔장터

- 일시: 2010년 9월 26일
 - 장소: 길상사 트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한 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으면서 몇 그루의 나무를 베는 삶을 살고 있는지, 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함께하는 벼룩시장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책, 헌옷 등 기증은 9/13~9/17

의류재활용 소품만들기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낡은 청바지를 어떻게 할까? 저희 의류재활용팀으로 오세요,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합니다.

또 다른 자연살림을 회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바느질법(미싱)도 배우고 헌옷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회원이 됩시다.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 밀반찬 배달 자원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 신참반: 9월 18~19일
- 맑고 향기롭게 회원남의 날 / 9월 17일(매달 셋째 금요일) / 오후 2시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9월 2일, 3일, 9일, 16일, 17일, 24일, 30일, 10월 1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9일은 김치 담그는 날 / 23일은 추석 연휴)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9월 5일) / 오전 8시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9월 12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

동 / 1, 2, 3, 5주 목요일(9월 2일, 9일, 16일, 30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9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월 첫째 수요일(9월1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셋째 일요일(9월 5일, 19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9월 13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9월 1일, 8일, 15일, 29일) 오후 1시~3시(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들)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9월 22일은 추석 연휴로 열리지 않음)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9월 7일, 14일, 28일) 오후2시 30분 / 소강

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9월 21일은 추석 연휴로 열리지 않음)

- 숲기행 / 9월 11일(토) / 죽령 옛길
- 알뜰나눔장터 / 9월 26일(일) / 길상사 경내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9월 28일(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9월 6일 (우편분류 9월 3일)

일반사업후원 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9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1/8/15/29일(매주 수요일)
10:00 ~ 12:00
- 장애우 이동목욕
1/8/15/29일(매주 수요일)
09:00 ~ 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2/9/16/30일(매주 목요일)
10:00 ~ 13:00
-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목욕활동
2/16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9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2/9/16/30일(매주 목요일)
09:30 ~ 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3/10/17/24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3/10/17/24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3/10/17/24일(매주 금요일)
09:30 ~ 12:00
- 1일(수) 양력 초하루법회
(매달 첫째날)
- 6일(월) 자원봉사자회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 4일(토)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7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4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4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4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5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9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추석 ‘한가위’ 결연세대 방문 송편과 성금 전달

추석 한가위를 맞아 오는 9월 15일 경남모임의 결연세대 후원 인연을 맺고 있는 자원활동자분들과 10가구를 방문하여 보름달의 마음을 담은 송편과 과일, 쌀 등 성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같이 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9/15)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9/28)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9/4, 11, 18, 25)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9/2)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9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9/10, 24)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3, 10, 17, 24)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9/29)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9/14(화)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9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밑반찬지원 / 매주 수요일(1, 8, 15, 29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11일(토) 오후 2시~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21일(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 황금복지관 /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매월 첫째 화요일(7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11일 오후 3시

● 롬비니동산 봉사 소감

8월이 생일인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모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파티 때문인지 평소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환해 봉사자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학교에 가고 싶은지 가방에 책을 채워 넣고 밖으로 이끄는 호빈이를 위해 같이 책을 읽고 퍼즐을 맞췄는데, 퍼즐에 꼭 빠졌는지 저녁도 먹지 않고 퍼즐을 맞추려고 해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어서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8월의 봉사를 마쳤다.

● 연꽃 피는 집 목욕봉사

밤새 억수같은 비가 내려 이곡동에는 물난리가 두 번씩이나 겹쳐서 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연꽃피는 집으로 출발했다. 그래도 아침에는 비가 그쳐 봉사를 나서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신천의 물은 엄청 불어나서 금방이라도 도로 위로 넘쳐 날듯 기세를 더하고 있었다. 동명을 지나 군위에 도착하니 이곳에는 도로 위로 토사가 넘쳐 복구하는 구간도 있고 개울물이 불어 팔팔 흐르고 있었다.

연꽃피는 집에 도착하니 이곳에는 별다른 비 피해는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었다. 할머니들 목욕을 시켜드리고 평소 같으면 팔공산을 넘어 귀가를 할 텐데 오늘은 길 좋은 국도로 다시 귀환했다. 오는 길에 기사 식당에 들러 점심까지 해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광주모임(062-236-3129)

9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롭게 광주사무실 이전
광주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이 9월 초 보성 대원사 광주포교당 지장왕사가 있는 구화산빌리지로 이전되었습니다. 지장왕사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인 현장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입니다. 이금지 광주 맑고 향기롭게 총무는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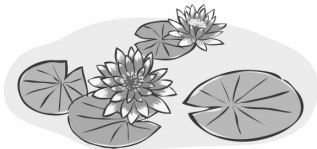


스님의 지역 순회법회에 맞춰 광주 사무실 개원법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광주사무실 새 주소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6-11
구화산빌리지 2층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하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 ~ 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9월 대상도서: 아름다운 마무리) / 주관: 현장스님 / 9월 25일(매월 지정재일) 오후 2시 지정왕사



<길상사 배움터 가을학기 개강>

길상사에서 진행되는 ‘불교 입문 강좌’, ‘토요법담’, ‘불교대학’이 9월에 가을학기를 개강합니다. 길상사는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수준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1. 불교입문강좌 야간반 개설
수업시간: 목요일 저녁 7:30~9:00
2. 교육 수강생을 위한 어린이방 마련
입문강좌(주), 토요법담, 불교대학(주) 수업시간에 맞춰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경전반 10월 개강>

총무 정산스님을 법사스님으로 10월 1일부터 경전반이 열립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낮 2시~4시
- 기간: 10월 1일부터 3개월
- 내용: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 대상: 입문반(구 기초교리반)을 수료하신 분
- 문의: 교무실 3672-0036

<중신도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작년 8월 16일 발족한 길상사 중신도회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9월 5일(일)에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 지난 8월호에 기념법회를 8월 15일로 공지했지만 사정상, 9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석 합동차례>

추석인 오는 9월 22일(수) 오전 10시 극락전에서 합동차례가 올려집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3672-5945

<불교 입문 강좌>

불교가 궁금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개강 : 9월 2일
- 시간 : 주간반(매주 목요일 낮 2시~4시)
야간반(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 기간 : 3개월(9월 2일~11월 27일)
- 참고 : 배움터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컵을 이용해주세요.

야간반 수강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출발 시간 : 저녁 7시

<토요법담>

주지스님의 법문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개강 : 9월 4일
- 시간 : 매주 토요일 낮 2시
3시~4시 - 질의응답
- 토요법담은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설법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단, 수계를 원하는 분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불교대학>

- 개강 : 9월 1일
- 시간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낮 2시~5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30분
- 기간 : 9월 1일~12월 15일
- 야간반 수강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출발 시간 : 저녁 6시 45분

<기초 경전반>

- 경전: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 법사스님: 총무 정산스님
- 개강: 10월 1일(금)
- 시간: 매주 금요일 낮 2시
- 기간: 3개월
- 대상: 기본교육을 수료하신 분(ex. 불교입문강좌, 기초교리반, 토요법담 등)
- 접수: 길상사 종무소 3672-5945

<2011년 대입수능 백일기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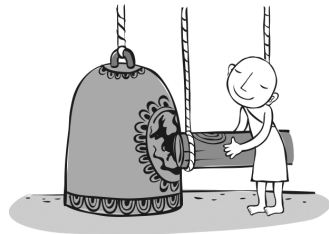
입시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재: 불기 2554년(2010년) 8월 11일
- 회향: 불기 2554년(2010년) 11월 18일
- 문의: 02)3672-5945(길상사 종무소)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첫째 주는 주지스님, 나머지 주는 정화스님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9월 11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9월 8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9월 20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9월 13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9월 28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9월 6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종로구 안국역 옆에 있는 어르신 이용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이곳에서는 매일 2,200여 분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서울모임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첫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요.

이곳의 하루 쌀 필요량은 320kg, 무려 네 가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곳으로 쌀 후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상사에서서는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 중 대중공양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10일, 1차로 20kg 공양미 22포대(440kg), 100kg 공양미 2포대(200kg), 떡으로 후원한 360kg까지 총 1,000kg과 공임비 18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2차로 길상사 공양미 360kg와 맑고 향기롭게에서 후원한 280kg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려진 길상사 불자님들의 자비롭고 정성스런 공양미에 담긴 마음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의 이웃을 향한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이 하나 되어 참 아름다운 일이 또 한 가지 이뤄졌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 주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도 커져 갑니다. 